

2023학년도 수능대비 Last Pray 세계사 모의고사 1회 정답

문항번호	정답	배점	출제소재
1	①	2	이집트 문명
2	⑤	3	옥타비아누스
3	①	2	시황제와 진나라
4	⑤	3	후우마이야 왕조
5	③	2	당나라
6	②	3	백년전쟁 시기 프랑스와 영국(잉글랜드)
7	①	3	일조편법의 시행 배경
8	④	2	일본의 막부와 무사 세력
9	②	2	포트르 1세
10	③	3	르네상스 시기의 문화
11	①	3	사산 왕조 페르시아
12	④	3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13	③	2	굽타 왕조
14	⑤	2	백련교
15	⑤	2	베를린
16	④	3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소련 침공
17	②	3	청년 튀르크당의 봉기 배경
18	③	2	국제 연맹
19	③	2	세계 대공황과 각국의 대응
20	②	3	문화 대혁명

◎ 총평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사 과목의 시험지를 분석하여, 그와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적절한 지업을 배치하여 변별력을 확보함과 더불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사료해석과 그 속에 녹아 있는 시대 상황을 묻는 2022학년도 수능을 토대로, 사료해석과 연표 둘 다를 잡을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수능의 각 단원별 평균 출제 비중 및 동서양사의 평균 출제 비중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국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문항 및 사료의 뉘앙스를 이용한 추론이 필요한 문제도 일부 수록하였다. 모든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최근의 평가원 기출문제,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 연계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를 기반으로 출제하였고, 교육청 기출 및 과년도 연계교재 문항에 대한 변형문항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문항들을 소화한다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사 과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상 등급컷		예상 오답률 Top3	출제 및 검토
1	47	6번	★ 마지막기도 ★ - 교원대 역사과 - 2022/2023학년도 수능대비 늘잠이 모의고사 동아시아사/세계사 검토 - 2022학년도 수능대비 동아시아사 모의고사 6회분 배포
2	45	12번	
3	42		
4	39	11번	

★ 문항 해설 ★

※ 문항별로 표기된 난이도는 상대적입니다.

1번 문항 (난이도 下)

지도자가 태양신 라(Ra)의 아들임을 자처했다는 점에서 (가) 문명은 이집트 문명임을 알 수 있다 (람세스 2세가 아부심벨 신전을 건설하였다는 내용은 천재교육 세계사 교과서에 나온다.). 이집트 문명은 상형 문자를 사용하였다.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긴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설명이고,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은 히타이트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갑골에 점복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중국 문명(상)에 대한 설명이고,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를 건설한 것은 인도 문명 증 인더스 문명에 대한 설명이다.

2번 문항 (난이도 中)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결탁한 내용을 폭로하여 안토니우스와 결전을 벌이게 되었다는 뉴앙스를 통해 (가) 인물이 옥타비아누스임을 알 수 있다. 그는 프린켑스(제1 시민)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농지법을 제정한 것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에 대한 설명이다. 로마의 스키피오는 포에니 전쟁 당시 자마에서 카르타고군을 격파하였다. 도편 추방제를 마련한 것은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이 이루어진 시기의 일이다. 로마 제국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크리스티교를 국교화하였다.

3번 문항 (난이도 下)

‘승상 이사’, ‘통일의 대업’, ‘사서나 제자백가의 책을 불태울 것(분서갱유)’ 등을 통해 밑줄 친 ‘폐하’는 진의 시황제임을 알 수 있다. 진나라는 만리장성, 아방궁, 여산릉과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단행하였다.

군국제는 한 고조가 실시한 정책이다. 황건적은 후한 말 일어난 농민반란이다. 오수전은 한 무제 시기에 발행된 동전이다. 장건이 서역에 파견된 것 역시 한 무제 때의 일이다(월지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었고, 이 부근을 통틀어 서역이라 한다.).

이 문항은 2022학년도 수능 연계 문항이다.

4번 문항 (난이도 中)

‘아바스 가문의 칼날을 피함’, ‘무와위야의 가문이 배출한 통치자’ 등의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새로운 왕조’가 후우마이야 왕조임을 알 수 있다. 후우마이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의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술탄 아흐메드 사원을 건립한 것은 오스만 제국이다. 후우마이야 왕조는 수니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시아파 왕조는 파티마, 사파비, 부와이 왕조 등이 있다.). 우즈베크인의 침입으로 멸망한 왕조는 티무르 왕조이다. 아시리아는 수도 니네베에 왕립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5번 문항 (난이도 下)

‘정관지치(정관의 치)’, ‘이연’, ‘돌궐과 대립’ 등의 내용을 통해 (가) 왕조가 당나라임을 알 수 있다. 당나라에서는 일종의 약속 어음인 비전을 사용하였다.

자치통감은 송나라 때 사마광이 저술한 역사서이다. 성리대전은 명나라 영락제의 명으로 편찬된 서적이다. 해관은 청나라 초기부터 시박사를 대체한 해상 무역 담당 기구이다. 파스파 문자는 원나라 때 라마교(티베트 불교) 승려인 파스파가 만든 문자이다.

6번 문항 (난이도 上)

마지막 문장의 자크리의 난에 대한 내용이 나오므로, (나) 국가는 프랑스 왕국임을 알 수 있고, 자크리의 난 당시 프랑스는 영국(잉글랜드 플랜테저넷 왕조)와 백년전쟁에서 충돌하고 있었다(초기에는 잉글랜드가 우세하였지만 잔 다르크의 활약으로 프랑스가 승기를 잡았다). 잉글랜드(플랜테저넷 왕조)는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였고, 프랑스 왕국은 플랑드르 지방을 차지하였다.

백년전쟁은 영국(잉글랜드) 왕의 프랑스 왕위 계승권 투쟁 및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 경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이다. 푸아티에에서 벌어진 전투라는 내용 때문에 프랑크 왕국과 우마이야 왕조 사이에 벌어진 투르-푸아티에 전투와 헛갈릴 수도 있는 문항이다. 자크리의 난이라는 키워드가 문제 전체를 관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뉴앙스를 파악하는 문항이다(플랜테저넷 왕조, 푸아티에 전투 등은 교과 외 내용이다.).

7번 문항 (난이도 上)

‘여러 비용 및 지방에서 바치는 특산품을 모두 하나의 항목으로 합하여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은으로 징수’, ‘가정 연간’, ‘만력’ 등의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이 제도’가 명나라 때 실시된 일조편법임을 알 수 있다. 북로남왜로 인해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자, 16세기 후반 장거정은 일조편법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8번 문항 (난이도 下)

‘새로운 수도(헤이안쿄)로 천도한 이후 약 400여년이 지남’, ‘군주는 상징적 존재’, ‘귀족의 장원 확대’, ‘쇼군’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새로운 세력’은 무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무사에 대한 탐구 활동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가제법도에 드러난 막부와 무사의 관계’가 가장 적절하다.

9번 문항 (난이도 下)

수염세 등 여러 가지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점 등을 통해 (가) 인물이 러시아 제국의 표트르 1세(표트르 대제)임을 알 수 있다. 표트르 1세는 네르친스크에서 청의 강희제와 6가지 항목의 조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고르비차강과 스타노보이 산맥 등을 경계로 하는 국경을 확정되었다(2022학년도 9월 세계사 2번 참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국가 제일의 공복’을 자처하며 내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영국의 존 왕은 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215년 대헌장(마그나카르타)을 승인하였다. 트라팔가르 해전(1805)에서 영국에 패한 것은 나폴레옹 1세이다. 폴란드는 여러 차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제국 등에 의해 분할되었는데, 그 중 교과 내 폴란드 분할은 1772년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오스트리아에 의한 분할이다.

10번 문항 (난이도 中)

‘서정시의 시기인 페트라르카’, ‘로마의 예술과 문화를 복원’ 등의 내용을 통해 전체적인 강좌 주제가 르네상스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에서 인간의 위선을 풍자하였고,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저술하여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하였으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는 몰락한 기사 계급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강력한 왕권의 성립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세부 사항의 강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웅적 무용담을 담은 롤랑의 노래’(중세)이다.

11번 문항 (난이도 上)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로마 제국의 부활’ 등의 낱어를 통해 제시된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임을 알 수 있고,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하면서 무함마드의 후계자에게 멸망했다는 내용을 통해 (가) 왕조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임을 알 수 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마니교가 성립되었다. 왕의 길은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건설한 길이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편자브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은 것은 티무르 왕조 등에 대한 설명이다. 탈라스 전투(751)는 당나라와 아바스 왕조 사이에 벌어진 전투로, 아바스 왕조가 승리하였다.

12번 문항 (난이도 上)

사르데냐 왕국과 프랑스가 프롱비에르에서 비밀 조약을 맺고 함께 (가) 국가를 공격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가) 국가는 오스트리아임을 알 수 있고, 이탈리아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전쟁하였고, (나) 국가가 프랑스와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왕국이 로마 교황령을 차지하였다는 내용 등을 통해 (나) 국가는 프로이센임을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빈 체제에 따라 결성된 신성 동맹(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의 일원이었다.

관세 동맹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주도하여 결성하였고, 오스트리아는 참여하지 않았다. 제1차 세계 대전은 독일 제국 수립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필리핀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 것은 미국과 에스파냐이다. 벵골 지방을 두고 플라시에서 전투를 벌인 것은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설명이다.

13번 문항 (난이도 下)

‘날란다 사원’, ‘아잔타 석굴 사원’, ‘간다라 양식과 인도 고유의 특색이 융합’ 등의 내용을 통해 (가) 왕조가 굽타 왕조임을 알 수 있다. 굽타 왕조에서는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하여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등이 저술되었다.

우르두어는 무굴 제국의 공용어이다. 지즈야는 무굴 제국 등 이슬람 왕조에서 비이슬람교도들에게 거두던 인두세이다(굽타 왕조는 이슬람 왕조가 아니다.). 쿠트브 미나르는 델리 술탄 왕조의 아이바크가 델리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탑이다. 산치 대탑은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이 세운 탑이다.

14번 문항 (난이도 中)

‘비밀 결사적인 성격’, ‘교초의 남발로 물가가 폭등하자 붉은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봉기’ 등의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이 종교’가 백련교임을 알 수 있다. 제시문의 ‘팔기군이 묘족을 정벌하는 틈을 타 일어난 봉기’는 청나라 때 일어난 백련교의 난에 대한 설명이다. 백련교는 의화단 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었다.

바르다마나(마하비라)는 자이나교를 창시하였다. 마라타 동맹은 힌두교도들이 결성한 동맹이다. 성리학은 대의명분과 화이론을 중시하였다. 카스트에 따른 의무 수행을 강조한 것은 브라만교이다. 이 문항은 2022학년도 수능 연계 문항이다.

15번 문항 (난이도 下)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였다는 점, 1960년대에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4개국이 분할 관리를 했다는 점 등을 통해 (가) 도시가 베를린임을 알 수 있다. 베를린에는 1961년 도시를 둘로 나누는 장벽이 설치되었다.

롬바르드 동맹은 중세 베네치아와 제노바 등이 결성한 동맹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방 무역에 앞장섰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도시는 비텐베르크이다. 피의 일요일 사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생하였다. 제1차 비동맹 회의는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되었다.

16번 문항 (난이도 中)

‘침공하여 스탈린에게 힘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은 제2차 세계 대전(1939~1945) 당시 독일의 소련 침공 계획임을 알 수 있다. 독일은 1941년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하였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이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였다(1941, 태평양 전쟁 발발).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을 점령하였다(1939).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자 그리스, 북아프리카 등지를 침공하였다(1940). 에스파냐의 프랑코 군부 세력은 1936년 반란을 일으켰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를 지원하였다. 독일은 폴란드를 점령한 후 프랑스를 공격하여 1940년 파리를 점령하였고, 폐탕을 수반으로 하는 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17번 문항 (난이도 中)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범이슬람주의를 내세워 자유주의를 탄압하고 전제 정치를 강화하였으며 헌법을 폐지한 튀르크인의 국가라는 점에서 제시문의 국가는 오스만 제국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술탄 압둘하미드 2세는 전제 정치를 펼쳤는데, 이에 반발하여 청년 장교, 지식인, 학생들이 중심이 된 청년 튀르크당이 무장 봉기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헌법을 부활시켰다(1908).

(압둘하미드 2세의 전제 정치에 대한 내용은 천재교육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18번 문항 (난이도 中)

파리 강화 회의 이후 국제 평화와 협력을 위해 결성된 기구라는 점에서 (가) 기구가 국제 연맹(1920)임을 알 수 있다. 국제 연맹 결성 당시 독일과 소련은 제외되었다(독일은 1926년, 소련은 1934년 가입).

멜친은 독립국가연합(CIS) 결성을 주도하였다. 대서양 헌장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1년 발표되었다.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국제 부흥 개발 은행 창설이 논의되었다. 국제 연맹은 분쟁에 대한 군사적 제재 수단은 미비하였다.

19번 문항 (난이도 中)

‘자산 가치가 폭락’, ‘세금 상승’, ‘보호 무역으로 인한 무역 장벽’, ‘은행 파산’ 등의 내용을 통해 밑줄 친 ‘현 상황’이 대공황임을 알 수 있다. 대공황 당시 미국은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하여 실업자를 줄였고, 영국은 본국과 식민지를 연결하는 블록 정책을 시행하여 파운드 블록이 형성되었다.

군국주의를 추구하며 만주를 침공한 것은 일본에 대한 설명이다. 와그너법은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였다.

(뉴딜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재교육 세계사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다.)

20번 문항 (난이도 中)

급진적 공산화를 추진하면서 인민공사를 조직하여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한 경제 개발 운동(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실각하게 된 마오쩌둥이 자신을 따르는 학생들로 하여금 준군사 조직(홍위병)을 결성하여 중국의 모든 전통적 가치와 부르주아 이념을 공격하게 한 것은 문화 대혁명(1966~1976)에 대한 설명이다. 서독의 총리 브란트가 동방 정책을 추진한 것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이다.

미국이 쿠바를 봉쇄한 것은 1962년의 일이다(쿠바 미사일 위기). 반동에서 평화 10원칙이 발표된 것은 1955년의 일이다(아시아·아프리카 회의).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이 붕괴된 것은 1989년의 일이다. 1989년에 일어난 공산주의권 국가들의 붕괴는 알아두자. 고르바초프가 개혁(페레스트로이카)·개방(글라스노스트) 정책을 표방한 것은 1980년대의 일이다(1985년 공산당 서기장 취임).

♥ 수고하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마지막기도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전에 배포했던 모의고사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원래 문항을 신규 제작하여 수록할까도 생각했었지만 제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올해 초에 제작해 두었던 모의고사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풀어보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사실 저는 동아시아사보다는 세계사를 더 좋아합니다.

이 모의고사가 여러분이 수능 세계사에서 고득점을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의 끝에서
마지막기도